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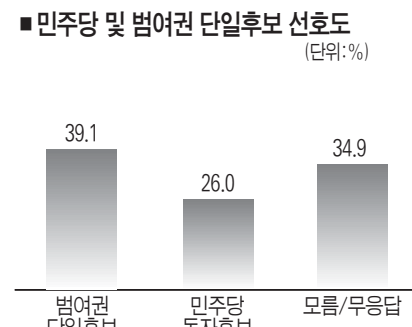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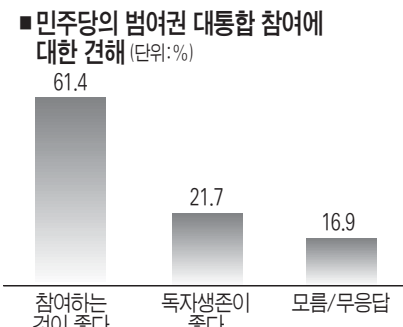
[ 기획 ]

광주일보·KBC·한국갤럽 대선 여론조사

# “범여권 대통합 이뤄져야 한다” 55%

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은 최근 정치권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범여권 대통합과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8일 설문조사를 했다.

대선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는 향후에도 수차례 더 실시돼 광주·전남 지역민들의 정치 의식을 살펴볼 예정이다.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.



광주·전남 유권자 818명 무작위 추출 전화

###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

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, 지난 28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.

광주·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818명을 유요 표본으로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면담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.

각 지역별 유권자 수 비례에 따라 성별, 연령별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

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응답자는 광주 331명(40.5%), 전남 487명(59.5%)이었다.

응답자는 성별로 남자가 401명(49.1%), 여자가 417명(50.9%)이었고 연령별로 19~29세 170명(20.8%), 30대 170명(20.8%), 40대 171명(20.9%), 50세 이상 307명(37.6%)이었다.

표본오차의 최대 허용한계는 95% 신뢰수준에 ±3.4%포인트다.

## 연령 높을수록 필요성 더 인식

응답자중 69.3%가 “통합 가능”

### 범여권 대통합 견해

‘범여권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’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4.9%인 반면 ‘그럴 필요가 없다’고 답한 응답자는 29.4%에 그쳤다.

찬반의 단순 비교를 놓고 볼 때 광주·전남지역민의 62.5%가 범여권 대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. 하지만 30%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.

20대 이하에서는 36.9%, 30대에선 52.4%, 40대에선 60.9%, 50세 이상에선 63.0%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대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광주(58.0%), 자영업자(63.6%)에서 범여권 대통합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. 순학규 전 경기지사의 지지자(77.3%)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지지자(62.9%) 사이에서 대통합의 필요성을 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’고 응답한 경우 그중 69.3%가 가능하다(불가능 20.7%)고 답했으며 ‘그럴 필요가 없다’고 응답한 경우는 49.0%가 불가능하다(가능 38.2%)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같은 조사 결과는 대통합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.

## “가능성 있다” 55.6%로 절반 넘어

남자·고학력·화이트칼라층서 높아

### 범여권 대통합 가능성

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다.

응답자의 25.1%는 가능성이 ‘많이 있다’, 30.5%는 ‘어느 정도 있다’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5.6%가 범여권 대통합의 가능성을 크게 봤다.

특히 광주(61.6%), 남자(58.6%), 대학 재학 이상(58.5%), 화이트칼라(64.1%), 순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자(71.2%)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지자(70.9%) 사이에서 대통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

하지만, 응답자의 4.3%는 ‘전혀 없다’, 25.4%는 ‘별로 없다’고 각각 답했다.

전체 응답자의 29.7%가 대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.

## 孫·鄭 지지층서 높게 나타나

48.5% “합치기만 하면 이긴다”

### 범여권 대통합 시

#### 대선승리 가능성

응답자의 절반 정도(48.5%)는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루면 오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봤다.

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뤄 단일 후보를 낼 경우 응답자의 17.4%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‘많이 있다’고, 31.2%는 ‘어느 정도 있다’고 답했다.

특히 남자(52.7%), 30대(56.2%), 자영업자(56.6%), 화이트칼라(54.7%), 순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자(73.6%),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지지자(60.8%) 사이에서 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봤다.

반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‘별로 없다’는 25.7%, ‘전혀 없다’는 8.9%로 나타났다.

찬반의 단순 비교로 볼 때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예측했다.

## 연령층 높을수록 민주 참여 희망

40대 64%·50대 이상 65.8%가 원해

### 민주당의 범여권 대통합

#### 참여에 대한 견해

‘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범여권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’고 생각하는 사람은 61.4%였다. 반면 21.7%만이 ‘독자 생존하는 것이 좋다’고 생각했다.

특히 20대 이하에선 53.3%, 30대에선 58.9%, 40대에선 64.1%, 50세 이상에선 65.

8%가 민주당의 대통합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의 대통합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한나라당 지지자(37.2%), 민주노동당 지지자(32.8%)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독자 생존을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따라서 범여권 지지자의 주류는 대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## “민주 지지” 26% “범여 지지” 39%

단일 후보 지지도 광주서 높아

### 민주당 및 범여권

#### 단일후보 선호도

민주당과의 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독자 후보와 범여권 단일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.0%가 민주당 후보를, 39.1%가 범여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.

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당 지지도(중도통합민주당 22.8%)보다 높게 나와

길게 끌었다.

범여권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남자(49.3%), 화이트칼라(50.6%), 학생(49.2%), 광주(44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특히 고학력일수록 범여권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종중 이하에서는 22.3%인 지지도가 고졸에선 40.1%, 대졸 이상에선 48.9%였다. 전체적으로 지역민들은 범여권의 대통합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대세라는 흐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

/북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공 시 최 고		
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. 11. 1. 10: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바랍니다.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		
2007년 7월 30일		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은영		
사건번호	신청인	목적
2007카공 109	임준일 전남 무안군 해례면 관산리 195	자기앞수표 번호:가121574079-85 금액:각금100,000원(7매) 발행일:2007년 6월 15일 발행인:김지갑인:국인은행 하당지점 최후소지인:임준일
2007카공 110	장인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646	자기앞수표 번호:라164539917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4월 2일 발행인:김지갑인:내비금융협동조합 최후소지인:장인수
2007카공 111	이흥남 목포시 상동 784-7 신일포유 204호	자기앞수표 번호:87120615-7 금액:각금100,000원(3매) 발행일:2007년 6월 27일 발행인:김지갑인:신한은행 하당지점 최후소지인:이흥남
2007카공 112	조민식 목포시 영해동1가 7-6	당좌수표 번호:00613181.00613183-9 금액:미기계 발행인:조민식 지급처:목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목포지점) 최후소지인:조민식 약속어음 번호:00613180.00496684 금액:미기계 발행인:조민식 지급처:목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목포지점) 최후소지인:조민식
2007카공 113	박영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304 송달주소:목포시 연산동 1237-9 유한회사 진경	자기앞수표 번호:02514323-7 금액:각금1,000,000원(5매) 발행일:2007년 6월 25일 발행인:김지갑인:목포대성동우체국 최후소지인:박영길
2007카공 114	유한회사 명성 목포시 상동 204-3 근화빌딩11층1109호 대표이사 강성준	약속어음 번호:자기00014100 금액:미기계 발행인:미기계 발행인:유한회사 명성 지급처:광주은행 연동지점
2007카공 116	서현재 목포시 상동 892-7 삼성생명 4층 영산영업소	자기앞수표 번호:가175784095-6 금액:각금100,000원(2매) 발행일:2006년 10월 28일 발행인:김지갑인: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최후소지인:서현재
2007카공 117	김영갑 목포시 서현동 광명아파트 102-101호	자기앞수표 번호:라124404480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7월 4일 발행인:김지갑인:외환은행 현대상호증권(출) 최후소지인:김영갑
2007카공 118	이승무 전남 영광군 삼호읍 나불리 560-3	기계수표 번호:아비0260339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미기계 발행인:장정석 지급처:하나은행 목포지점 최후소지인:이승무
2007카공 119	김갑원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산터리 751	자기앞수표 번호:라101923290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6년 12월 20일 발행인:함평농업협동조합 신용지점 발행처:함평농업협동조합 신용지점
2007카공 120	김영우 목포시 상동 1173 빌리앙드 104-1104	자기앞수표 번호:라16080164-73 금액:각금1,000,000원(10매) 발행일:2007년 7월 11일 발행인:김지갑인:국민은행 하당지점 최후소지인:황정우
2007카공 121	전정숙 목포시 해안동 3가8	자기앞수표 번호:라193523783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7월 12일 발행인:김지갑인:목포수산업협동조합 최후소지인:전정숙
2007카공 122	김애중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정리 320	자기앞수표 번호:가164318094, 가164318097-101 금액:각금100,000원(6매) 발행일:2007년 7월 13일 발행인:김지갑인:군서농협중앙회 최후소지인:김애중
2007카공 123	임철호 전남 영광군 영암읍 사남리 41-3	자기앞수표 번호:04756688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5월 30일 발행인: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암읍지부 최후소지인:임철호
2007카공 124	김미영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588	자기앞수표 번호:라101886160 금액:각금1,000,000원 발행일:2007년 7월 12일 발행인:김지갑인:무안농협중앙회 함동지점 최후소지인:김미영

# 베트남 국제결혼

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**이오자이 국제결혼**이 함께합니다.

**본사만의 장점**

1. 본사가 베트남현지에서 위치하여 결혼비용 완전 거품제거-실속결혼비용
2.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현지 대행사로 풍부한 성혼 노하우 축적
3. 현지 최다 여성회원 보유
4. 배우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상대여성 과 초·재혼·만혼별 맞춤형성혼 주선
5. 신부대상 한글, 한국문화, 예절교육을 입국전 실시하여 국내적응지원

**베트남 결혼수수료 무료 고충상담**

대 상 : 베트남 결혼여행 후 결혼수수료 지원으로 4개월 이 지나도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본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문제점을 시원 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

베/트/남/전/문 -----

**이오자이 국제결혼** 문의 전화 **062)232-8966**  
010-5256-8966

광주시 동구 충정로4가 55-1 금양오피스빌 1003호